

90年代에는 폐기물 永久處分場·貯藏施設 건설 2000年代까지 解体技術·廢棄物 관리기술 확립



李 台 燮
(科學技術處 長官)

朴正基 大會長, 李炳暉 韓國原子力學會長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國內外 원자력
관계자 여러분!

오늘 제 2 회 韓國原子力産業會議/原子力
學會 合同年次會議에서 본인이 축하의 말
씀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 입
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原子力發電所인 고리 1
호기의 商業運轉日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본
회의는 韓國 原子力界의 成熟과 自覺의 所産
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앞으로도 무궁한
發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우리나라에 전등이 밝혀진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뜻깊은 해
에 國內外 科學技術者 및 關係者들이 한자
리에 모여 “原子力技術의 向上과 自立”이라
는 主題로 원자력 경험을 討論하고 技術自立
方案을 論議하는 것은 우리나라 原子力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를 解決하려는 적극
적인 努力의 하나로 評價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다 할
부존자원이 없이 工業化와 輸出을 통해 國家
發展과 번영을 이룩하여야 하는 우리의 여건
에서는 우수한 人力을 바탕으로 한 科學技術
의 확보가 유일한 國家 産業 經濟 發展의 수
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20여년간의 부단한 노력
으로 이제 科學技術分野에서 中進國으로 발
돋움했으며 특히 第5共和國 출범과 더불어
技術革新이라는 大統領閣下의 政策意志를 받
들어 特定研究開發事業 등 國家主導 技術開
發事業을 강력히 추진해 온 결과,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 世界10位圈의 技術先進國으로

“ 원자력은 다른 에너지와 달리 技術依存性이 극히 높다는 점에서 우리와 같이 부존 자원이 빈약한 나라에 적합한 에너지로서 꾸준한 技術開發과 國産化가 요청되는 分野라고 하겠습니다.”

진입할 수 있는 제 2의 技術도약 기반을 조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國家目標가 차질없이 달성될 때 풍요로운 先進福祉國家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70년초 세계경제를 불황과 침체의 수렁으로 밀어넣은 石油波動은 에너지자립이야말로 한 나라의 자주독립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의 하나라는 새로운 사실을 인식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세계각국은 에너지 安定供給을 위한 代替에너지 開發에 거국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原子力發電事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제 원자력은 국내 電力供給面에서 主力에너지로 등장하였습니다.

그간 세계각국이 추진해온 代替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소비절약의 성과로 석유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原子力發電의 經濟性에 대해 異意를 제기하는 輿論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은 다른 에너지와 달리 技術依存性이 극히 높다는 점에서 우리와 같이 부존 자원이 빈약한 나라에 적합한 에너지로서 꾸준한 技術開發과 國産化가 요청되는 分野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 技術自立도는 40%선에 불과하여, 주요 核心技術을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技術自立이 주요한 현안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정부는 “2000년을 向한 科學技術發展 長期計劃”에서 에너지부문을 중요 戰略分野의 하나로 설정하고 原子力 技術自立을 力點事業으로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그 目標와 基本方向을 제시한 바 있음

니다.

그러나, 원자력 이용개발은 원자력시설의 안전운영 뿐만 아니라 방사선재해 예방이 前提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방사성폐기물의 安全管理과 國土環境의 保수를 위해 1990년대에 방사성폐기물 永久處分場 및 使用後核燃料 中間貯藏施設을 건설, 운영하고 2000년대까지 原子爐解体技術의 실용화와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을 확립토록 연구 개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발생한 일련의 原子力事故로 우리 국민들의 原子力에 대한 認識도 크게 달라졌으며 放射能 災害에 대한 憂慮와 關心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련의 체르노빌 事故는 原子力 事故의 심각성을 實證적으로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原子力發電所의 安全性에 대한 根本적인 논란을 제기하는 등 원자력사업 추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원자력분야에 종사하는 여러분의 배전의 努力과 분발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韓國原子力産業會議 / 原子力學會 合同年次會議가 우리의 현안 과제를 기탄없이 論議하고, 다각적인 改善 方案과 戰略을 討議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原子力技術의 向上과 自立의 길을 提示할 수 있는 유익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자리에 참가해 주신 원자력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심심한 謝意를 표하며 이만 祝辭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感謝합니다.

1987. 4. 29